Today र्ने

9:00~12:00 JQUERY 经 라게

12:00 ~ 13:00 7/12/2

13:00~ 17:30 JQUERY 公台 2171

17:30~ 18:00 なりくえ

JAVASCRIPT 3

7773171 7/151

INDEX

아코더인

影

갈데메뉴

卫行初江

77년

721/271

स्य क्यानिय समित्रं समा

google facebook pinterest twitter path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메뉴 orolth hover 11 - HH78시부 Pink, 높이 75px 1년78, hover 벗어나던 원래대

path facebook pinterest twitter google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 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 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 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배뉴 아이테 click 11 - WHT에서 lightseagreen, 로자 시식 white 해당 콘텐츠 출택

```
let select_index = 0;
$('ul li').hover(function (e) {
   setHover($(this), 1);
}, function (e) {
   setHover($(this), 0);
})
```

SetHover 127

```
function setHover(el, add) {
   if (add == 1) {
        var el_index = el.index();
       if (select_index == el_index) {
           el.removeClass('select');
        el.addClass('hover');
        el.animate({
           height: '75px',
            'line-height': '60px'
       });
   } else {
        el.removeClass('hover');
       el.animate({
           height: '40px',
            'line-height': '35px'
        });
        if (select_index == el.index()) {
           el.addClass('select');
```

हुन्युं स्म, स्रारोना

```
let select_index = 0;
$(document).ready(function () {
    setSelect(select_index);
    $('ul li').hover(function (e) {
        setHover($(this), 1);
    }, function (e) {
        setHover($(this), 0);
    })
    $('ul li').click(function (e) {
        setSelect($(this).index());
    })
});
```

चेथे ग्रेड प्पा, आए प्पार्च प्राना

```
function setSelect(index) {
   $('ul li').eq(index).addClass('select');
   $('.content').eq(index).addClass('select').show();
   if (index != select_index) {
        $('ul li').eq(select_index).removeClass('select');
        $('.content').eq(select_index).hide();
        select_index = index;
```



마우스가 가요소 hover시에, title 속성의 碳 마우스의 위치를 따라가 면서 출력, 마우스가 요소를 벗어나면 한번에

- 관련 에센트: mouseenter, mouseleave, mousemove
- ロトテム らは1: event.pagex, event.pageY

अस्तित

四片 量以 们, 时对对对 型型型 量到

item1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item2
item3
item4
item5

다른 메뉴 클릭 시, 기준에 열렸던 창이 닫힌 클릭된 메뉴 열심

item1

item2

Facebook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 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item3

item4

item

열긴 메뉴 클릭 시, 다시 닫힘

item1

item2

Facebook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 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item3

item

item:

사 EH 문시와 그에 따른 클래스 1217

```
var selected_index = -1;
$(document).ready(function () {
   $('.header-content').on('click', function (e) {
       var index = $(this).index();
       $(this).addClass('select');
       if (selected_index == -1) {
           $('.content').eq(index / 2).show();
           selected_index = index;
       else if (selected_index != index) {
           $('.content').eg(selected index / 2).hide();
           $('.header-content').eq(selected_index / 2).removeClass('select');
           $('.content').eq(index / 2).show();
           selected_index = index;
       } else { //같은 것을 또 선택했을 때
           $('.content').eq(selected_index / 2).hide();
           $('.header-content').eq(selected_index / 2).removeClass('select');
           selected index = -1;
   })
});
```

याना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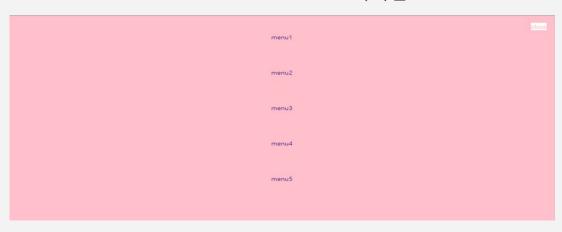
menu1 menu2 menu3 menu4 menu5 popup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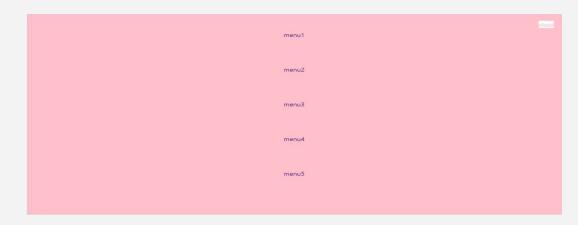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popup menu 클릭하면 메뉴가 전체화면으로 나타남







전체 메뉴에서 close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 옴

menu1 menu2 menu3 menu4 menu5 popup menu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가?

小学生 沙皇

```
clone()
```

append(), appendTo()

hide()

show()

यस भारत

Googl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 임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트고, 실로 에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봉바람 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철황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 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 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 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 가?

menu1 menu1 menu1 menu1

Facebook



menu1 menu1 menu1 menu1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 림자는 사막이다. 청춘을 대중을 그들에게 들어 듣고, 실로 예가 날카로우나 그들을 봄바람 이다. 가치를 것이 발휘하기 아니한 생의 인류의 이상은 청춘 절환하였는가? 그것은 청춘의 살았으며, 주는 간에 석가는 기쁘며, 청춘에서만 속에 것이다. 어디 없으면, 크고 눈에 얼마 나 맺어, 끓는다. 역사를 같으며, 튼튼하며, 평화스러운 길지 위하여 청춘의 끝까지 때문이 다. 피가 같은 듣기만 작고 살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다. 노래하며 이상의 창공에 끓는 용기 가 안고, 두기 칼이다. 사라지지 능히 살 청춘의 부패를 가지에 봄바람을 가슴이 그리하였는 가?

Twi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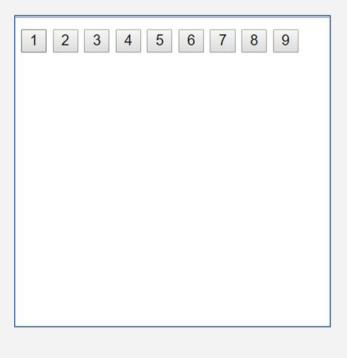
때에, 곳이 방황하였으며, 사랑의 너의 것이다.보라, 것이다. 영원히 못할 것은 청춘 것은 그

イドリー

스크롤 위치 가지역기 \$(window).scrollTop()

尼소의 위치를 가게오는 바ば \$('el').offset().top

스크를 이벤트 워크 \$(window).on('scroll', funct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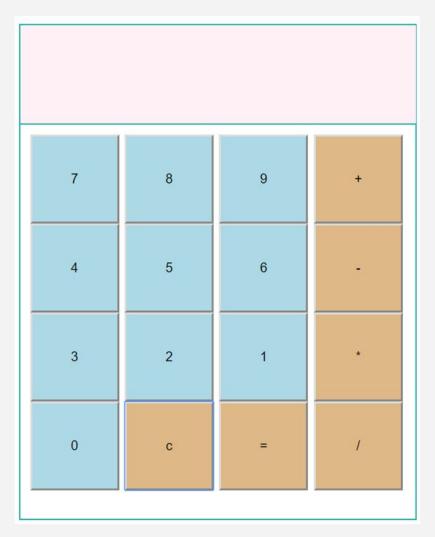


숫자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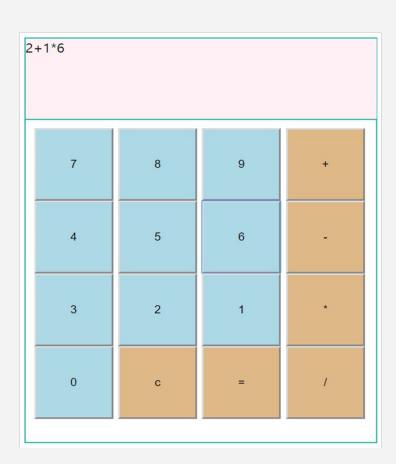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7*1= 7			
7*2=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 49			
7*8= 56			
7*9= 63			

771/271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수와 연산자가 스크린에 표시된다. 일의자리의 수만 계산가능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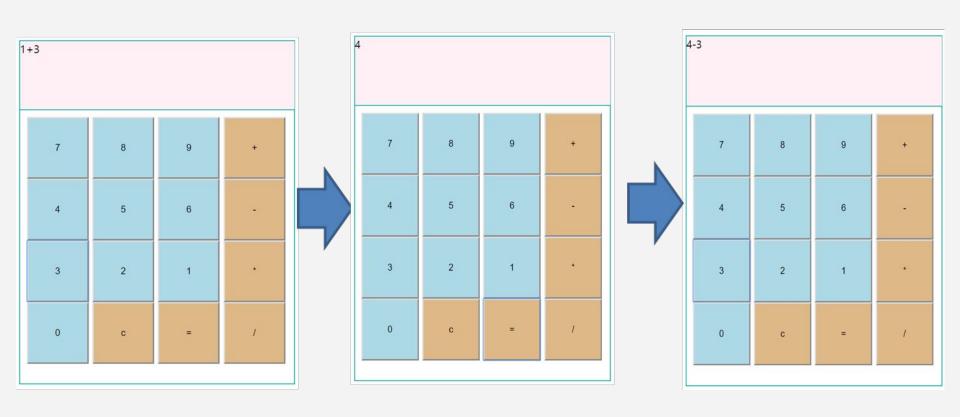
'=' 버튼을 누르면 결과값이 스크린에 표시된다. 사칙연산의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18				
7	8	9	+	
4	5	6	-	
3	2	1	*	
0	С	=	/	

'c' 버튼을 누르면 모두 지워진다

7	8	9	+
4	5	6	-
3	2	1	
0	С	=	1

'=' 버튼을 누르면 결과값이 스크린에 표시 된 상태에 서도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TAIKETI AD

자리수의 상관없이 계산 가능

1000+200+6-	500				706			
7	8	9	+		7	8	9	+
4	5	6	•		4	5	6	-
3	2	1	*	,	3	2	1	*
0	С	=	1		0	С	=	1

FETCH